
한국융합인문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고령화 사회와 삶의 가치에 대한
융합적 탐구**

일시: 2019년 11월 9일(토) 14:00~17:30

장소: 고려대 안암캠퍼스 교육관 302호

주관·주최: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융합인문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

- ▶ 일시 : 2019년 11월 9일 (토), 14:00~17:30
- ▶ 장소 : 고려대 안암캠퍼스 교육관 302호

제1부 학술대회 | 고령화 사회와 삶의 가치에 대한 융합적 탐구 [14:00-16:00]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축사	• 회장 : 양윤모 (극동대)
14:10-14:40	기획강연	▶ 한국 사회 노인 관련 이슈와 대응 방안 • 발표 : 박지선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 • 사회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
14:40-15:10	주제발표	▶ 독거노인의 주거편리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연구 • 발표 : 이장욱 (충청대) • 토론 : 박보영 (극동대) • 사회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
15:10-15:30	휴 식	
15:30-16:00	자유발표	▶ 문학교육 담론에서 사용하는 '비판 능력' 개념 변천에 관한 시론 • 발표 : 박수민 (고려대) • 토론 : 문장원 (고려대) • 사회 : 박치범 (육군사관학교)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6:00-16:30]

- 진행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송시형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안내 및 앱(App) 소개
 2.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안내 및 관련자료 배포
 3.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제3부 한국융합인문학회 총회 [16:30-17:20]

- 진행 : 총무이사 박치범
1. 제5대 회장 선거 결과 추인(선거관리위원장 박보영)
 2. 기타 안건 토의

폐회 선언 [17:20-17:30]

- 진행 : 회장 양윤모

목 차

기획강연

한국 사회 노인 관련 이슈와 대응 방안

01

박지선(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

주제발표

독거노인의 주거편리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연구

09

이장욱(충청대) / 토론 : **박보영**(극동대)

자유발표

문학교육 담론에서 사용하는 ‘비판 능력’ 개념 변천에 관한 시론

33

박수민(고려대) / 토론 : **문장원**(고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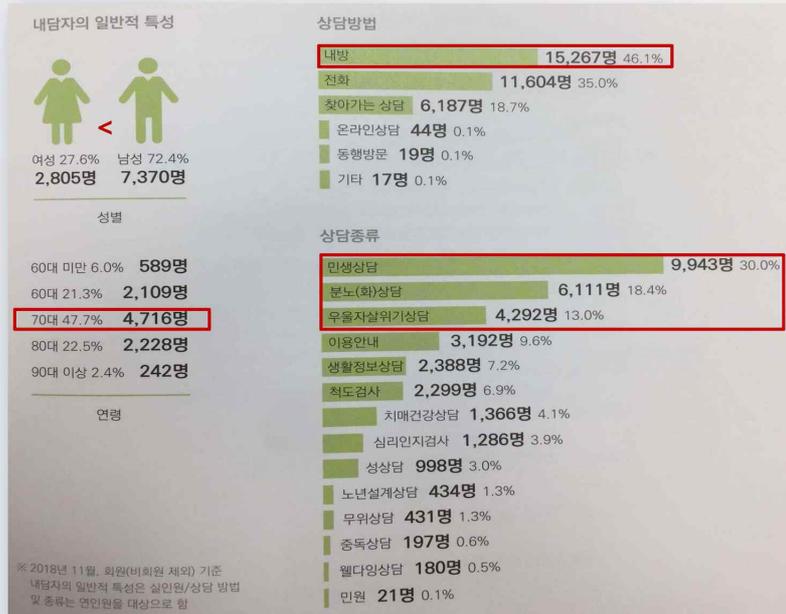
한국의 노인관련 이슈와 대응방안

2019. 11. 9. (토)
박지선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실장)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소개

- 
- 2009년 6월 개소
 - 서울시 위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기관으로 운영
 - 이용대상: 만60세 이상 서울시민
 - 직원구성: 센터장1, 실장1, 과장1, 상담원 4
 - 사업내용
 - 상담사업: 개별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24시간),
온라인상담, 아웃리치, 가족상담, 동년배상담
 - 교육연구사업: 노인상담사례관리 종사자 교육
동년배상담교육

상담센터를 찾는 어르신들의 특성 (2009~2018)



하류노인(下流老人)



- 2015. 6월 발간 이후
1년간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 후지타 다카노리(저자)
일본 사이타마현 생활빈곤자 지원 비영리단체 '후토플러스' 대표
- 600만~7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일본 극빈곤층 노인의 열악한 현실을 담은 책
- 하류노인의 특징=3無
 - 수입이 없다
 - 저축이 없다
 - 의지할 사람이 없다



하류노인(下流老人) 속편 과로노인(過勞老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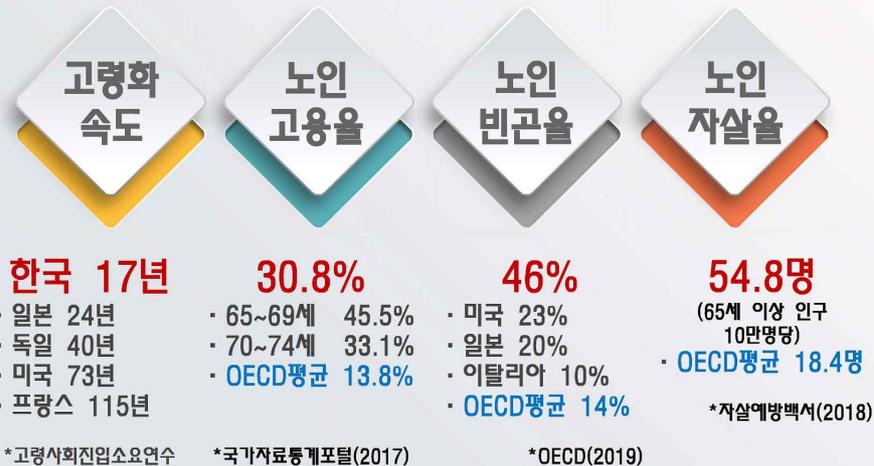
· 과로노인?

늦은 나이에도 돈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하는 노인

- 저자가 제시한 해결책
 - 사회공통자본 확대
 - 비정규직이어도 생활에 어려움 없는 시스템 구축
 - 사회주택 확충
 - 현물지급 서비스에 주목
 -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
- 개인의 노력만으로 과로노인 문제 해결 어려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도 따라야 한다

한국 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

쏟아지는 세계1위



노년기에 겪는 주된 어려움 '사고(四苦)'



빈곤(貧困)



질병(疾病)



무위(無爲)



고독(孤獨)

노인복지실천현장에서 마주하는 노인관련 이슈

노인복지실천현장에서 마주하는 노인관련 이슈1

빈곤(貧困)

- 절대빈곤의 시대에서 살아온 유년기~청소년기
- 가족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에 전념해 온 청년기
- 미처 준비되지 못한 채 맞이한 노후
-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 살기 위해 더 낮은 질의 일자리에서 혹사당하는 노년 (폐지줍기)
- 빈곤한 상태로 병들고, 고립되고, 죽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
- 민생피해(사기)

노인복지실천현장에서 마주하는 노인관련 이슈2
질병(疾病)

- 누구에게나 일할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온다
- 돈이 없어서...방임할 수 밖에 없는 건강, 영양문제
- 급증하는 치매노인...경도 인지저하 노인의 하루
- 사람과 사회에 대한 믿음이 깨진 노인들
 - 망상...흉기 소지하고 다니는 노인(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
 - 화, 분노, 울분...노인범죄(승례문방화, 이웃주민 독극물살인 등등)
 - 우울증과 자살생각, 자살시도(노인자살률)

노인복지실천현장에서 마주하는 노인관련 이슈3
무위(無爲)

- 길어진 은퇴 후의 삶...여가시간 보내는 방식 = 여전히 TV시청 1위
- 탐골공원과 종묘에 나오는 남성노인들
- 서울지역 노인복지관 이용률? 전체 노인인구의 2%

노인복지실천현장에서 마주하는 노인관련 이슈4 **고독(孤獨)**

■노인1인가구, 노부부가구 증가

...자기방임, 노노케어, 사별과 상실감

...안전사고의 위험, 낮은 관계망, 고독사

■가족갈등과 관계단절, 부부관계문제와 황혼이혼, 소통의 어려움

■우울, 분노 등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 표출

어떤 대응?

행복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관심을...

“몸의 상처는 눈에 잘 보이는 데다 육체적 고통을 주기에 사람들은 무척 민감하다. 몸에 상처가 나면 곧바로 약을 바르거나 병원에 가는 것은 그래서다. 반면에 마음의 상처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파악하기가 힘들고, 기본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사람들, 나아가 사회는 그대로 참고 견디거나 방치해두는 경향이 있다. 마음의 상처가 제때 발견되거나 치료되지 못하고 심각하게 악화되어 종종 정신 장애가 되거나 자살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시되곤 하는 것은 그래서다”

-김태형(2013), 트라우마 한국사회 中-

어떤 대응?

행복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관심을...

불행한 소수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대체로 구축되어 있지만 그 불행은 물질적 어려움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한 노인은 기준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
(feat. Emotional Well-being)
‘감정의 웰빙’을 챙겨가야 할 때!

-울분연구의 대가, 서울대 유명순 교수의 강의 중-

정서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강화

어떤 대응?

우리는 연결될수록 건강한 존재들

- 도시화, 신도시화 현상으로 노인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힘든 구조. 자연스럽게 관계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 가부장적 사회에 길들여진 노인들. 그러나 사회 변화와 가치관 변화로 가정 내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위치

“개인이 무장을 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원인을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니까요”

-김승섭(2017), 아픔이 길이 되려면 中-

사회적 관계망...서로의 곁이 되기

어떤 대응?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노인에 대한 이해

누구든 개개인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아온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 사람을 오롯이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노명우 교수(2018), 인생극장
남석인 교수(2019), 공개상담슈퍼비전 중 요약-

‘90년생이 온다’를 청와대 전직원에게 선물한 문재인 대통령
“새로운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들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 누구나 경험한 젊은 시절, 그러나 지금 우리는 20대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한겨레 신문 2019.08.07. 기사 중 발췌-

인권교육, 세대통합 프로그램 등



감사합니다

2019. 11. 9. (토)

박지선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실장)

독거노인의 주거편리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연구

-대전광역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이장욱(충청대)

〈목 차〉

1. 서론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제언

1. 서론

주거라는 공간은 독거노인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독거노인들은 주거라는 공간에서 오랜 시간 삶을 영위함에 있어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된 영역이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사가 투영된 장소로 주거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표현함으로써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곳이기 때문이다(진정화, 2001; 정재훈, 2013). 과거 주거라 하면 단위주택의 내·외부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분석에만 머무르다가 현재는 공간적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근린 내지는 지역 사회(communit)로까지 번지고 주거환경이라는 확대된 형태로 관심이 넓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주거복지의 현재 고용, 교육, 보건, 여가, 심리 등의 지원 등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어 중요한 사회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한국주거학회, 2007). 곧 주거환경은 삶의 제반활동 중심부에 있으면서, 사회·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복지정책에서는 시설복지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세대와의 합가 등을 추천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전히 독거노인의 생활만족저하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기존 시설복지에 대한 독거노인 스스로 느끼는 선호도가 현재는 그리 높지가 않다(임호규, 2010). 오히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소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공간에 머무르려 한다. 개인적으로 독립활동을 할 수 있게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인 특성을 고려해 환경적 지원을 높여주기를 더 희망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에 입각한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있어서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주거생활에서의 안전함과 편리함, 주변과의 관계부분이 누구보다 중요하게 느끼고 있다(이승권, 2011). 주거에

서의 이러한 요소들의 충족은 곧 생활만족과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문현주, 2014). 이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이 식사, 운동, 수면 등의 생리적인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감이 높다면 건강한 상태를 보이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과 행태적 욕구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주거환경의 충족은 독거노인들의 삶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여겨지고 있다. 노인들이 말하는 만족스러운 삶이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상태라 할 수 있고, 생활만족도는 이러한 기본적 욕구의 충족으로 높아질 것이다(윤해수, 2010).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환경과 맺는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Cohen & Syme, 1985; House & Landis, 1988). 접촉량이 많으면 강력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Worobey & Angel, 1990). 결국, 사회적 지지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받는다는 것이다(Kahn, 1979; Norris & Murrell, 1988). 이를 통해 인간의 생활이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Cobb, 1976). 독거노인의 경우 부양가족의 부재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뿐 아니라 공적인 지원이 부족하기에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은 더욱더 중요하고 필요한 실정이다(유수상, 2007). 독거노인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유발된 심리적인 문제를 감소시킴으로써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즉, 삶에 대한 무력감과 고독감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Jennifer Yeh & Lo, 2004; Lin & Dean, 1997; 김우신, 2013 재인용). 사회적 지지는 독거노인들에게 건강을 유지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VanDerHorst & McLaren, 200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증가를 위해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에서 느끼는 감정과 사회적 지지의 적절한 조절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문제 시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심리적인 문제인 생활만족도를 드높이기 위한 요인들로 주거환경의 편리함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주거환경에 대한 편리성을 강화한 지역사회모델제시와 사회적 지지의 이론적 기반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의 사회적 지지의 유형인 기능적 지지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등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독거노인들이 자각하는 주거환경의 편리성 정도와 기능적 지지 정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대전지역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독거노인 인구는 3만 7023명으로 대전 전체인구의 2.4%에 해당되며, 이 중 남성이 29.8%(11,046명), 여성이 70.2%(25,977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또한 대전 5개구의 독거노인의 비율은 동구 25.0%(9,261명), 중구 23.8%(8,811명), 서구 25.0%(9,254명), 유성구 12.2%(4,510명), 대덕구 14.0%(5,187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라는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에 대한 기능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거환경의 편리성이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주변 기능적 지지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정책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대전광역시가 2016년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등록 통계'를 개발하였고 인구, 복지,

경제능력, 건강상태의 네 가지 부문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본 연구가 지방도시 중 대전광역시라는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근거자료로 추가 제공하고자 한다. 세부내용으로는 대전지역 내 기능적 지지 정도와 주거환경 편리성을 체크함과 동시에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지역사회 복지실천 측면에서의 독거노인에 대한 개입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요인인 주거 편리성에 대해 조사를 한 후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 이하 기능적 지지가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요인과 생활만족도 사이에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를 검증해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의 근거제시와 함께 사회적 지지의 구성 요인 중 영향력이 있는 부분을 확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노후가 좀 더 만족한 삶이 될 수 있게끔 정책·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거환경요인(주거 편리성)과 사회적 지지(기능적 지지)가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요인(주거편리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기능적지지)가 조절하는 효과를 지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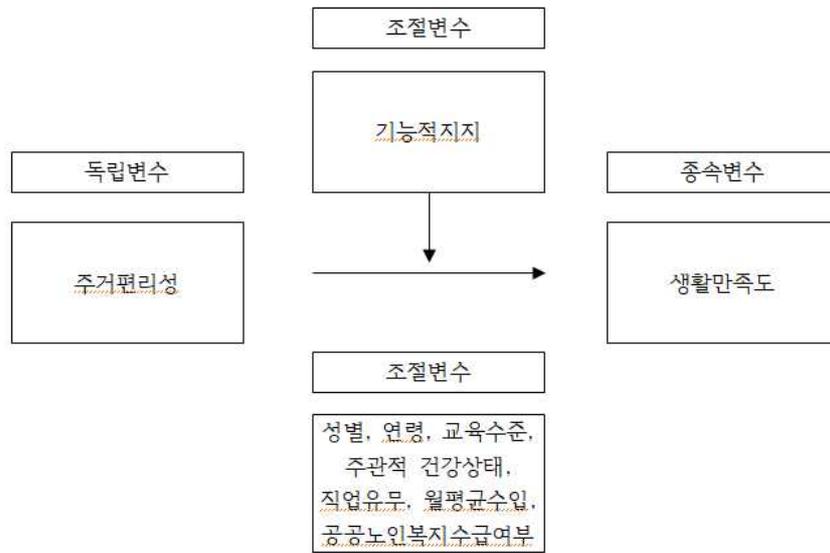
2.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주거편리성과 생활만족도의 영향관계 및 주거편리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기능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주거편리성의 개선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항목으로 독거노인의 주거편리성을 제시하였고 종속변수로 생활만족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조절변수로 기능적 지지를 제시하였고, 성별,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직업유무, 월평균수입, 공공노인복지수급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설정한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2016년 통계청자료 인구주택 총 조사 기준, 독거노인은 137만 9천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역사회 수준의 연구인 것으로써 현실적 접근가능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그 대상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3만 7천 23명의 독거노인으로 한정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로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주민등록상에 혼자 되어있거나, 또는 실제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의 특성상 명단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유성구 각각 5개구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 확률표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행정기관이 보유한 독거노인 명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각 구의 모든 복지관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임의표집방법을 사용해 지역 구분별로 노인복지관을 임의로 선정, 복지관이 보유하고 있는 독거노인 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문응답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응답은 각 노인복지관과 생활 관리사들의 도움을 얻어 미리 설문지의 내용과 기입방식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2017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전광역시 각 구 단위로 유의성을 고려해 90명씩 총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1〉 지역구분

지역명	구분	갯수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지역

3) 측정변수

(1) 독립변수: 주거 편리성

주거환경 편리성은 의료시설이용, 교통접근성, 생활편의시설이용, 여가·문화활동, 공원·조경시설, 노인복지, 여가시설 등에 대한 이용 편리성을 의미한다. 주거환경 편리성은 6개 문항이다. 각 문항의 내용은, 첫째, 의료시설이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하다. 둘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다. 셋째, 생활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넷째, 여가·문화 활동을 하기 편리하다. 다섯째,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조경시설이 있다. 여섯째, 경로당, 복지관, 노인요양원, 노인대학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이선화, 2016).

설문지형태는 Likert척도로 각 문항에 “매우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않다(2)”, “매우그렇지않다(1)”의 5점 척도로 구성해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주거환경 편리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는 Neugaten, Havighurst, Tobin(1961)이 개발한 생활만족도척도와 Wood, Wylie & Sheafor(1969)의 생활만족도척도,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에 의해 개발된 생활만족도척도, Medley(1976)의 생활만족도척도, 마지막으로 최성재(1986)의 생활만족도 척도가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국내 많은 연구들에 사용되고 있는 최성재(1986)의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앞서 Medley(1976)의 척도와는 구별성은 문항수가 8문항으로 너무 문항이 적음으로 생활만족내용을 자세히 다루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하는바, 20문항으로 되어 있는 최성재(1986)의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최성재(1986)의 척도는 이영분·최혜지(2006), 임진섭(2007), 이진석(2010), 송호영(2011), 문용·신갑호(2012), 김대영(2012), 박성왜(2013), 최희자(2014), 김하정(2016) 등 최근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설문지는 과거 6문항, 현재 8문항, 미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형태는 Likert척도에 따라 각 문항에 “매우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않다(2)”, “매우그렇지않다(1)”의 5점 척도로 구성해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박지원(1985)에 의해 개발된 기능적측면의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척도로 사용한다. 사회적 지지의 척도의 경우 이미 표준화되어 신뢰도를 인정받은 검사도구로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1985년 박지원에 의해 개발된 것을 사용하였다. 박지원(1985)의 척도는 김효심(1994), 김연수(1995) 등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능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정

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지지의 평가적 지지는 종속변수의 생활만족도 세부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하고 나머지 정서적 지지(5문항), 정보적 지지(5문항), 물질적 지지(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기능적 지지의 개념은 한 개인이 가족, 친척, 친구 및 사회복지사, 지역주민 등 그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도움으로써 첫째,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칭찬 등의 정서적 지지, 둘째,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보적 지지, 셋째, 필요한 돈, 물건 등을 제공해주는 물질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다.

기능적 지지의 설문지 형태는 Likert척도에 따라 각 문항에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2)”, “매우 그렇지 않다(1)”의 5점 척도로 구성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에 대한 결과 값이 클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우신, 2013; 권주현, 2017; 이선미, 2017; 이찬영, 2017)

(4) 통제변수

독립변수인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이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직업유무, 월평균수입 공공노인복지서비스수급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설문 응답에 관해 ADL(일상적 생활수행능력) & IADL(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설명을 설문응답자에게 설명을 한 후 설문응답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기입하도록 하였다.

(5) 변수구성 및 조작화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 <표 2>와 같이 변수들을 정의하고 처리하였다.

〈표 2〉 변수구성 및 조작화

변수		변수정의 및 측정	
종속 변수	생활만족도		5점척도(매우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그렇다=5)
독립 변수	주거 환경	주거 편리성	5점척도(매우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그렇다=5)
조절 변수	사회적 지지	기능적 지지	5점척도(매우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그렇다=5)
통제 변수	성별	남성, 여성	더미처리(기준변수=여성)
	연령	만 나이	연속변수
	교육수준	교육기간	연속변수(교육년수)
	종교	종교유무	더미처리(기준변수를 종교없음=0 종교있다=1로 재코딩사용)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5점척도(매우 건강하지 않다=1,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건강한 편이다=4, 매우 건강하다=5)
	직업유무	현재 직업유무	더미처리(기준변수=없음)
	월생활비	월소득	연속변수(만원)
	공공노인 복지서비스	노인돌봄서비 스(기본, 종합)	더미처리(기준변수=받고있지 않음)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4.0 통계패키지를 사용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모형의 각 변수들을 측정하는 척도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위해 분산팽창지수(VIF)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의 주거편리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기능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직업유무, 건강상태, 월 생활비, 공공노인복지서비스수혜로 구분하여 분석을 <표 3>과 같이 나타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450)

구 분		빈도수	비율(%)
성별	남성	91	20.2
	여성	359	79.8
연령 (M=78.79) (SD=5.817)	69세 이하	19	4.2
	70세~79세	210	46.7
	80세 이상	221	49.1
학력수준	무학	135	30.0
	초졸	205	45.6
	중졸	57	12.7
	고졸 이상	53	11.8
종교	무교	151	33.6
	천주교	64	14.2
	개신교	114	25.3
	불교	104	23.1
	기타	17	3.8
직업유무	있음	28	6.2
	없음	422	93.8
건강상태	매우 건강하지 않다	80	17.8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00	44.4
	보통이다	107	23.8
	건강한 편이다	57	12.7
	매우 건강하다	6	1.3
월 생활비	30만원 미만	38	8.4
	30만원~50만원 미만	234	52.0
	50만원~100만원 미만	157	34.9
	100만원 이상	21	4.7
공공노인복지 서비스 수혜	받고 있음	260	57.8
	받고있지 않음	190	42.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결과, 각 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노인복지관의 설문응답자는 90명씩 5개 구에서 450명의 응답지를 회수 하였습니다. 결과를 분석하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에서는 91명과 359명으로 남성독거노인이 20.2%, 여성독거노인이 79.8%로 나타났다. 연령은 69세 이하는 19명(4.2%), 70~79세가 210명(46.7%), 80세 이상이 221명(49.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최소연령은 61세, 최대연령은 97세이고 평균 78.79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졸이 가장 많은 분포

를 보이는 것으로 전체 응답자 중 205명(45.6%)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무학 135명(30.0%), 중졸 57명(12.7%), 고졸이상 53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과반 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신교와 불교가 각각 114명(25.3%), 104명(23.1%), 천주교가 64명(14.2%), 기타 17명(3.8%), 그 외 종교가 없는 경우가 151명(33.6%)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유무에서는 직업이 없는 노인이 422명으로 93.8%, 직업이 있는 노인이 28명(6.2%)를 기록하여 대다수의 응답자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매우 건강하지 않다’가 80명(17.8%),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응답률이 200명(44.4%), 보통이다 107명(23.8%), 건강한 편이다 57명(12.7%), 매우건강하다 6명(1.3%)으로 나타냄으로서 전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독거노인이 많게 나타났다. ‘매우 건강하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매우 건강하다’를 5점으로 하였을 때 평균 2.35를 나타냈다. 조사대상자의 월 생활비는 최소 30만원 미만에서부터 100만원 이상까지 놓고 조사한 결과 30만원~50만원 미만의 분포가 가장 많은 234명(52%)를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이 157명(34.9%), 30만원 미만이 38명(8.4%), 100만원 이상도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21명(4.7%)를 보였다. 분석모형에서는 월 생활비를 log값을 사용하였다. 최소 2.3에서 최대 5.35, 평균 3.75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공공노인복지서비스 수혜 유무에서는 ‘받고 있음’이 260명(57.8%)로 과반수 이상은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혜혜택을 받지 않는 노인의 수가 190명(42.2%)이나 나타났다.

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1) 조사대상자의 주거편리성

〈표 4〉 조사대상자의 주거 편리성(N=450)

변수명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주거 편리 성	1. 의료시설(병원)이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하다.	3.17	1.067
	2.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다.	3.26	1.049
	3. 생활편의시설(시장, 슈퍼마켓, 백화점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3.08	1.145
	4. 여가·문화활동을 하기 편리하다.	2.65	1.121
	5. 주변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조경시설이 있다.	3.09	1.154
	6. 경로당, 복지관, 노인요양원, 노인대학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3.01	1.149
	전 체	3.04	.853

더불어, 조사대상자에 대한 주거 편리성요인에서는 총 6문항으로 최소 2.65~최대 3.26을 기록하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2번 문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다’로 평균 3.26(SD=1.049)를 나타냈고, 4번 문항인 ‘여가·문화활동을 하기 편리하다’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아직도 과거 우리 전통세대 독거노인들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술분석을 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N=450)

변수명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생활 만족도	1. 지난 평생을 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별로 없다	2.58	.934
	2.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었다	2.47	.842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었다	2.73	.942
	4. 나는 내 동갑내기들보다 어리석은 판단을 많이 내린 편이다(*)	3.29	.812
	5. 내가 살아온 길은 되돌아보면 이루어 놓은 게 별로 없다(*)	2.69	.872
	6. 나의 지난 평생은 힘들고 괴로워서 생각하기도 싫다(*)	2.98	.946
	7. 요즘 나는 살 맛이 난다	2.68	.825
	8.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 세상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좋게 느껴진다	2.86	.834
	9. 요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때이다	2.56	.848
	10.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서 만족한다	2.78	.904
	11. 매일 매일의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3.16	.891
	12. 요즘 나는 매사가 짜증스럽고 귀찮다(*)	3.32	.859
	13. 요즘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다(*)	3.27	.886
	14. 요즘 화나는 일만 점점 많아진다(*)	3.47	.857
	15.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	2.56	.935
	16.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다	2.51	.876
	17.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2.60	.836
	18. 앞으로 내가 할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2.48	.888
	19.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2.63	.883
	20. 더 이상 나이 먹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낫다(*)	3.20	1.017
	전 체	2.84	.493

(*) 역점수로 변환

<표 5>의 결과를 토대로 생활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낮을수록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일부분항 즉, 4, 5, 6, 11, 12, 13, 14, 18, 19, 20번의 문항은 역점수로 변환하여 결과분석을 한 것을 바탕으로 각 문항의 평균은 2점에서 3점 후반의 사이를 기록, 비교적 비

숫하게 나타났으나 2번 문항인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었다’의 평균이 2.47(SD=.842)로 삶의 만족도 문항 중에는 가장 낮게(부정적) 나타났고, 14번 문항인 ‘요즘 화나는 일만 점점 많아진다’의 평균이 3.47(SD=.857)로 가장 높게(긍정적)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기능적 지지

조사대상자인 독거노인의 기능적 지지에 대한 분석은 <표 6>와 같이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자의 기능적 지지 (N=450)

변수명	문항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지지 (기능적 지지)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3.61	.814
	2. 내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3.55	.838
	3.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것이다	3.57	.807
	4.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 감정을 이해하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려고 할 것이다	3.49	.853
	5.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3.87	.854
	6. 내 의견을 존중해 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준다	3.72	.820
	7.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할 때 충고와 조언을 할 것이다	3.55	.786
	8. 나에게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3.61	.759
	9. 내가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알게 해준다	3.62	.809
	10.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3.51	.821
	11.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	2.90	.942
	12.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3.52	.823
	13. 내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3.52	.868
	14. 내가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응해줄 것이다	3.41	.884
	15. 내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대신 내일들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3.04	.941
	전 체	3.49	.639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 이하 기능적 지지에 대한 질문항목으로는 총 15문항으로 2.90~3.87의 분포를 보였으며,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은 5번 문항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가 3.87(SD=.854)를 나타냈다. 이는 사회적 지지 항목 중 정서적 지지에 해당이 되고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응답항목은 11번 문항인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마련해 줄 것이다'로 평균 2.90(SD=.942)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지지 중 물질적인 지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분석

가설검증을 위한 변수별 타당성 검사를 위하여 SPSS 25 프로그램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변수별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측정변수들이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요인분석과 종속변수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조절변수로 구성된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지지의 요인분석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 방식을, 요인회전은 Varimax 방식을 택하였으며 요인에 대한 점수는 고유치(eigen value)기준을 적용하여 고유치(eigen value) > 1.0이 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고유치는 그 요인을 설명하는 분산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값이 큰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용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에서는 기능적 지지의 고유치가 7.799로 매우 높은 고유치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변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도 상당히 높은 고유치를 나타내고 있다.

요인분석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와 Bartlett의 검정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그 값이 0.7 이상이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당하다는 것이고, 그 값이 0.9이상이면 변수의 선정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 응답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Cronbach의 알파와 같은 신뢰도 측도를 계산한 값을 가지고 판단한다.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각각의 하의 요인별로 문항을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의 알파값을 사용하였으며, 그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는 다음의 <표 7>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KMO 값은 .859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하부 요인인 기능적 지지의 요인분석 결과, KMO 값은 .906으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매우 잘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분석에서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를 사용하였고,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직교회전방식인 베리맥스(varimax)를 채택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는 1.0 이상이고 요인적재치는 0.4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요인별 요

인적제치가 0.4 미만인 측정변수와 동일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 하였고 각 변수별 설명력이 큰 측정변수가 위에 배치되도록 크기순 정렬 하였다.

〈표 7〉 변수별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항목	요인 적재값	고유값	분산설명력	Cronbach's α
독립 변수	주거 편리성		주거 편리성3	0.861	3.546	17.730	.832
			주거 편리성1	0.814			
			주거 편리성2	0.809			
			주거 편리성4	0.746			
			주거 편리성6	0.640			
조절 변수	사회적 지지	기능적 지지	기능적 지지13	0.824	7.799	38.993	.942
			기능적 지지6	0.811			
			기능적 지지3	0.809			
			기능적 지지2	0.802			
			기능적 지지4	0.796			
			기능적 지지10	0.796			
			기능적 지지7	0.788			
			기능적 지지8	0.787			
			기능적 지지12	0.777			
			기능적 지지9	0.776			
			기능적 지지14	0.771			
			기능적 지지1	0.730			
			기능적 지지11	0.553			
종속 변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10	0.748	4.565	22.826	.864
			생활만족도8	0.741			
			생활만족도17	0.736			
			생활만족도16	0.718			
			생활만족도7	0.717			
			생활만족도9	0.717			
			생활만족도3	0.644			
			생활만족도2	0.593			
			생활만족도15	0.572			
			생활만족도1	0.406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결과, 독립변수의 하위척도인 주거 편리성은 요인분석에서 요인적재 값이 0.4 이상이고 신뢰도 검증에서 각각 Cronbach's 알파값이 .832으로 그 값이 0.6 이상으로 측정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도 요인 적재값이 0.4 이상이고 Cronbach's 알파값이 .864로 나타나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조절변수인 사회

적 지지에서는 기능적 지지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기능적 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의 3개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기능적 지지의 큰 변수로 묶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하부 요인별 요인 적재치는 기준치인 0.4를 상회하고 신뢰도 지수인 Cronbach's 알파값도 0.6 이상으로 조절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종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8>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주거 편리성	3.05	0.857	0.117	-0.132
기능적 지지	3.51	0.641	-0.183	0.007
생활만족도	2.63	0.590	-0.015	0.057

조사대상자의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거 편리성은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3.05를 나타내었다. 기능적 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5점 리커드 척도로 평균 점수 5점에 가까울수록 기능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기능적 지지의 평균은 5점 만점에 평균 3.51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6으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는 평균 5점 만점에 5점에 가까울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고 평균 2.63으로 평소 생활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3) 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

(1)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된 변수인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주거 편리성)과 사회적 지지(기능적 지지), 생활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표 9>와 같이 결과가 나타났다.

〈표 9〉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N=450)

변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종교	건강 상태	직업	월 생활비	공공노인복지서비스	주거 편리성	기능적 지지	생활 만족도
성별	1										
연령	-.133**	1									
교육수준	.342**	-.202**	1								
종교	-0.076	-0.021	.100*	1							
건강상태	0.068	-0.033	0.091	.169**	1						
직업	.122**	-.100*	.151**	.125**	.241**	1					
월생활비	0.065	-0.028	.184**	0.090	.157**	.127**	1				
공공노인복지서비스	0.072	.121**	0.040	.107*	0.029	0.015	.152**	1			
주거 편리성	-0.006	-.237**	.162**	-0.014	.128**	-0.004	0.084	-0.028	1		
기능적 지지	-.121*	0.085	-.093*	-0.077	0.046	0.015	0.064	0.028	.195**	1	
생활 만족도	-0.070	-0.057	-.119*	-0.034	.329**	0.031	0.073	-0.002	.219**	.356**	1

* p<.05, ** p<.01

(더미변수: 성별(여자0, 남자1), 종교(무교0,종교있음1), 직업(없음0, 있음1), 공공서비스(못받음0, 받음1).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와 독립변수인 주거 편리성, 조절변수인 기능적 지지,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건강상태, 직업, 월 생활비, 공공노인복지서비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들의 경우 일부 더미 변수화 하여 상관분석에 사용하였고 구체적으로 성별(여자0, 남자1), 종교(무교0,종교있음1), 직업(없음0, 있음1), 공공서비스(못받음0, 받음1)으로 재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수가 상관관계계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상관계수가 .8이상인 관계가 없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는 연령, 교육 수준, 직업, 기능적지지 등으로 나타났다.

4) 분석모형과 가설검증

(1) 분석모형

앞서 가설1과 가설 2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분석모형

분석모형	
가설1	주거 편리성→생활만족도
가설2	기능적 지지 ↓ 주거 편리성 → 생활만족도

(2) 주거환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기능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표 11〉 기능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한 분석결과(주거 편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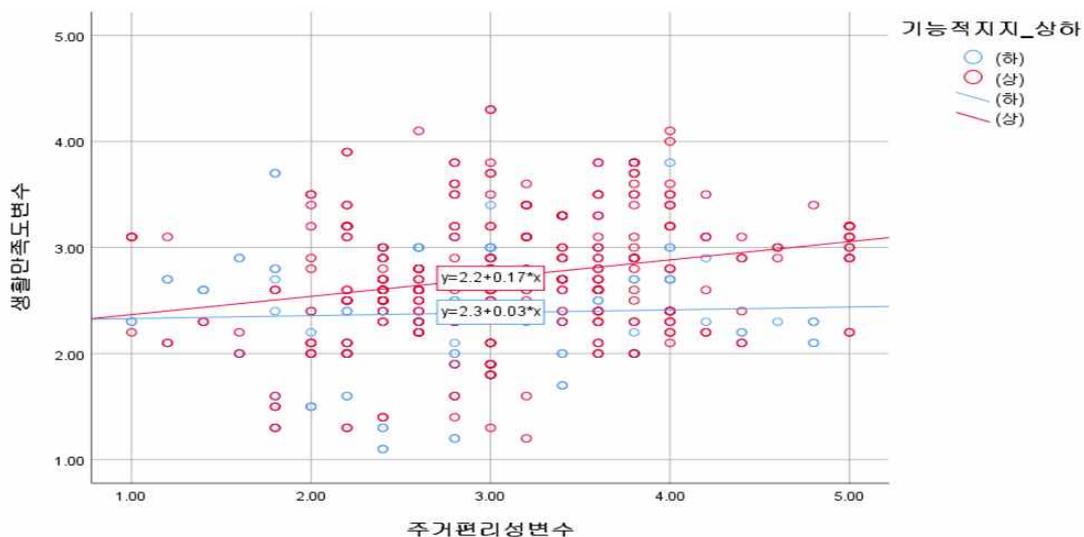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상수)	2.714		6.128	1.582		3.573	1.700	0.445	3.819
성별	-0.093	-0.063	-1.330	-0.025	-0.017	-0.374	-0.017	0.065	-0.266
연령	-0.009	-0.087	-1.920	-0.008	-0.079	-1.804	-0.008	0.004	-1.874
교육수준	-0.022	-0.144	-2.964**	-0.022	-0.146	-3.166**	-0.021	0.007	-3.071**
종교	-0.110	-0.089	-1.940	-0.062	-0.050	-1.168	-0.071	0.053	-1.329
건강상태	0.219	0.357	7.722***	0.198	0.323	7.439***	0.195	0.027	7.308***
직업	-0.075	-0.031	-0.670	-0.080	-0.033	-0.763	-0.113	0.106	-1.063
월생활비	0.081	0.056	1.210	0.040	0.027	0.633	0.020	0.063	0.310
공공노인복지	0.013	0.011	0.233	0.003	0.003	0.064	0.004	0.050	0.087
주거 편리성				0.083	0.121	2.726**	0.063	0.032	1.989*
기능적 지지				0.279	0.303	7.080***	0.281	0.039	7.168***
주거 편리성× 기능적 지지							0.032	0.016	2.036*
R^2	.150			.267			.273		
ΔR^2	.135			.250			.255		
F	9.708***			15.883***			14.920***		

*:p<.05, **:p<.01, ***:p<.001.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주거 편리성이 종속변수인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기능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이 Model 1에서는 통제변수를 기준으로 종속변수인 생활만족에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교육수준이 낮고 종교가 없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Model 2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주거 편리성 높고, 기능적 지지가 높을수록 종속변수인 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는 Model 2와 같이 교육수준, 건강상태, 주거편리성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고 주거 편리성과 기능적 지지의 상호작용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는가를 기준으로 기능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Model 3을 기준으로 유의확률 값이 0.05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교육수준, 건강상태, 주거 편리성, 기능적 지지로 나타났고, 주거 편리성이 1점 증가할 때 베타값을 기준으로 생활만족에는 0.063만큼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지지도 1점 증가함에 따라 생활만족에는 0.281만큼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 편리성과 기능적 지지는 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기능적 지지가 생활만족에 조절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Model 3에서 마지막 주거 편리성과 기능적 지지, 상호조절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주거 편리성이 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기능적 지지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 편리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서 기능적 지지가 높으면 종속변수인 생활만족에 더 큰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 <그림 2>와 같이 SPSS 프로그램에서 기능적 지지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 그룹으로 나누어 주거 편리성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회귀직선을 각각 그렸다. 그림과 같이 회귀직선식이 상단에 있는 그래프가 기능적 지지가 높은 (상)그룹이고 기능적 지지가 낮은 (하)그룹의 회귀직선은 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림에서 조절변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기울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주거 편리성과 생활만족의 관계에 있어서 기능적 지지의 조절효과



(3) 가설 검증결과

독거노인의 주거편리성과 생활만족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검정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가설검정 결과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2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에서 주거 편리성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 2-6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에서 기능적 지지는 주거 편리성이 생활만족에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주거편리성과 생활만족도간의 영향 및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독거노인의 주거편리성이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이하 기능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450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연구 결과와 논의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대전광역시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여자가 79.8%, 남자 20.2%에 비하여 많았으며 연령은 70세 이상이 과반 수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경우 전체 여성독거노인이 70.2%(25,977명), 남성독거노인이 29.8%(11,046명)를 나타내 비례한 결과수치를 보였다(통계청, 2017).

조사대상자들이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4.4%,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3.8%,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7%, 매우 건강하지 않음이 17.8%, 매우 건강하다가 1.3%로 나타나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독거노인이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독거노인의 이러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조사한 이명숙(2004)의 연구에서 이들의 건강상태는 나쁘게 인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유수상(2007), 구복남(2009), 이진석(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건강할수록 자신의 생활에 긍정적이며, 사회적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상태에 더 만족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직업유무에 대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93.8%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으며, 공공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서는 57.8%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인 대전광역시 독거노인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는 소수에 불과한 반면, 과반 수 이상이 공공노인복지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식이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수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8.4%가 30만원 미만, 30만원~50만원 미만 52%, 50만원~100만원 미만 34.9%, 100만원 이상이 4.7%로 전체 응답자의 60.4%가 평균 50만원 미만의 수입이라고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독거노인이 겪는 일상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 빈곤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인 대전광역시 독거노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 수준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에게 평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많이 도와주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질문에서 자녀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다른 지지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으로써 아직까지 실제 떨어지는 있어도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인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의 전화 빈도 및 방문 빈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자 중 복지사 및 봉사자와의 전화와 방문을 통한 접촉빈도가 자녀와의 접촉빈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부분에서 사회복지사 및 봉사자들이 다른 사회적 지지자보다도 더 자주 조사대상자를 방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사 및 봉사자가 자녀 그리고 이웃의 접촉빈도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독거노인은 사회복지사, 봉사자 등의 공식적인 지지 원들의 역할이 미흡, 부족하다는 이진석(2010)의 연구와는 대비되고 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도 측면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낮을수록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의 내용이 '나의 지난평생은 성공적인 편이었다'라는 내용으로 평균 2.47(SD=.842)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대상자들이 지난 나의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한 것은 아니라는 후회 섞인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의 내용은 '요즘 화나는 일만 점점 많아진다'로 평균 3.47(SD=.857)를 기록하였다. 이 역시 현재 만족할 만한 생활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내용이다.

대전광역시 조사대상자의 주거 편리성 부분에서는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다'가 평균 3.26(SD=1.049)를 나타내고, '의료시설(병원)이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하다'가 3.17(SD=1.067)을 기록함으로써 기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카드'를 통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편리성 부분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에 대한 주변 편리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주거환경의 주거 편리성의 변수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지지의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능적 지지만을 조절효과로 볼 경우 독립변수인 주거 편리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고 기능적 지지의 조절효과도 유의미하게 나왔다.

2) 독거노인복지정책과 실천을 위한 제언

인생주기에서 Maslow(1970)의 욕구이론에도 나타나 있듯이 노년기는 자아실현·통합을 일궈내는 즉, 정리의 단계에 해당이 된다. 때문에 노년기의 말기로 갈수록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장소,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친밀감과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현재의 고령자 관련정책 분야에서도 복지, 주택,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복지기술 등의 영역에서도 Aging in place의 관점을 고려하고 있다(박종용 외 2017). 'Aging in place'에서 '장소(place)'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물리적 차원으로는 노인이 현재 살고있는 주택이나 지역사회를 의미하며, 더불어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가족이나 이웃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을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감정적,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귀속감이나 소속감을 의미한다. 이미 선진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이 추구하고 있는 'Aging in place'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선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살던 장소에서 계속하게 거주하는 것은 사회적 지지체계와의 친밀성을 높이고 자주적인 주거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결국 자주성·독립성을 주거를 통해 보여주고 사회적인 측면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안정감까지도 찾아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독거노인의 주거 편리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주변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편리성 개선과 교통이용에 대한 배려, 그 밖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건강상태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독거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관찰하며 이들의 건강상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사 및 지역봉사자 등의 정기적인 방문활동을 활용하여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보건소를 중심으로 독거노인의 대한 건강검진, 건강관리교육 등의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의료비 지원 같은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지지 중 기능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으로써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도 기능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독거노인들이 물질적지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와 봉사자 뿐 만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단체들과 학교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정기적인 방문 및 결연후원, 정보제공 등을 통해 기능적 지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우신(2013).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현주(2014). “여성독거노인들의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권(2011). “노년기 주거이동과 주거환경 선택요인”,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수상(2007).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해수(2010). “노인주거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화(2018). “노인의 주거환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호규(2010). “노인복지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훈(2013). “노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소”, 『대한건축학회』. 15(6). 93-100.
- 진정화(2001). “여성과 주거공간”, 『대한건축학회』. 262. 47-52.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 논총』. 49.
- 한국주거학회(2007).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전문가용)”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hen, S. E. & Syme, S. L.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House, J. S., Umberson, D. & Landis, K. R. (1988). Structures and processes of social suppor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4(1), 293-318.
- Kahn, R. L. (1979). Aging and social support. *Aging from birth to deat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1, 77-91.
- Medley, M. L.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16, 448-455.
- Neugarten, D. Havighurst, R. & Tobin,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 Norris, F. H. & Murrell, S. A. (1988). Prior experience as a moderator of disaster impact on anxiety symptoms in older adul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5), 665-683.
- Vanderhorst, R. K. & McLaren, S. (2005). Social relationships as predictors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Aging & Mental Health*, 9(6), 517-525.

Worobey, J. L. & Angel, R. J. (1990). Functional capacity and living arrangements of unmarried elderly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45(3), 95-101.

「독거노인의 주거편리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연구」에 대한 토론문

박 보 영(극동대)

최근 독거노인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떠올랐습니다. 독거노인은 1인 가구가 통상적으로 겪는 어려움, 이를테면 정서적 외로움과 고독감과 경제적 곤궁함 등에 시달릴 확률이 높고, 노년기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신체적 의존성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독거노인들의 행복감과 삶의 질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표자의 발제는 시의성이 클 뿐 아니라 노인복지 현장에 주는 실천적 울림과 정책적 함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남권 거점 도시인 대전지역을 연구한 발표자의 시도와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만 합니다.

다만 발표문을 검토한 결과 그 의의만큼이나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다고 사료됩니다. 발표자가 학술논문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급히 수정·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토론문이 발표자의 연구에 좋은 자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안점

○ 발표문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현 발표문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유기적 완결성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표자가 많은 내용을 무리하게 발표문에 담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표자는 “독거노인의 주거편리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기획은 소논문 형식의 글에 두 개의 주제를 동시에 담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과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루고자 한다면 논리 전개와 구성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산만하게 내용을 나열하는 것에 그칠 뿐, 발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주제와 문제의식과 명제를 제대로 전달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 역시 매우 간명하게 써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재 발표문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히 잘 와닿지 않습니다.

○ 발표문의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은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구학적 요인’은 발표문에서 제외하기 바랍니다. 인구학적 요인은 발표자의 기획의도를 볼 때

사족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 사회적 지지 중 ‘기능적 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발표문을 읽어봐선 기능적 지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능적 지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발표자가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왜 기능적 지지에 주목하는지, 또 왜 중요한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12페이지 ‘조사대상자의 기능적 지지’ 부분도 이 부분에 유념해서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고 봅니다.

- 2페이지, 세 번째 단락은 맥락 없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앞의 문맥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고쳐 쓰기 바랍니다.

- 5페이지, 연구모형 그림은 파워포인트 같은 툴을 이용하여 보다 보기 좋게 다시 작성하기 바랍니다.

- 5페이지, ‘<표 1> 지역구분’은 사족입니다. 삭제하기 바랍니다.

- 8페이지, ‘<표 2> 변수구성 및 조작화’에서 ‘변수정의 및 측정 부분’은 사족입니다. 삭제하기 바랍니다.

- 8페이지,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의 영어표기는 모두 사족입니다. 이 영어표기들을 한글과 병기한다고 해서 한글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삭제하기 바랍니다.

- 8~9페이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내용 전개상 없어도 무방합니다. 삭제하기 바랍니다.

- 14페이지, ‘<표 8>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은 사족입니다. 삭제하기 바랍니다.

- 16페이지, ‘분석모형과 가설검증’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매우 빈약하며 내용 서술이 빈약합니다. 제목은 ‘가설검증’으로 변경해야 하며, 분석모형 부분은 삭제하고, ‘가설검증결과’는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현재는 “가설검증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라고 단 한 줄 써놓고 표만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표의 내용이라는 것도 ‘채택여부’만 표기되어 있어 통계자료분석 도표로서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설검증결과’라고 별도의 목차로 분리하지 말고, 앞서 논의가 끝나는 부분에 한 문단 정도로 정리해서 붙이기 바랍니다.

- 19페이지, ‘주요 연구결과와 논의’의 첫 번째 문단부터 세 번째 문단까지는 불필요한 내용들입니다(*인구학적 특성). 삭제하기 바랍니다.

문학교육 담론에서 사용하는 ‘비판 능력’ 개념 변천에 관한 시론

박수민(고려대)

〈목 차〉

1. 서론
2. 민족과 순수 이데올로기를 밝혀내는 능력으로서 비판 능력
3. 스스로 맥락을 찾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으로서 비판 능력
4. 결론

1. 서론

문학교육으로 비판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본고에서는 1990년대 이후 문학교육 담론에서 비판 능력 개념이 어떻게 규정되고 달라지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문학교육에서 비판 능력을 논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적 맥락을 제공한다. 논의의 필요성은 다소 뜻밖에도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국어과 교육과정을 비교한 일에서 비롯되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 총론을 보면 6가지 핵심역량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도 6가지 핵심역량이 제시되어 있다.

총론 핵심역량과 국어과 핵심역량은 대동소이하다.¹⁾ 국어과 핵심역량을 정할 때 적극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차이점은 주목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총론 ‘창의적 사고 역량’이 국어과에서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으로 재서술된 점이다. 해당 핵심역량만 재서술된 것은 아니다. 가령 총론 ‘자기관리 역량’은 국어과에서 ‘자기 성찰·계발 역량’으로 재서술되었다. 다만, 문학교육 입장에서 볼 때—재서술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후자의 재서술은 충분히 납득된다. ‘자기관리’보다 ‘자기 성찰’이 문학교육에서 보다 잘 길러줄 수 있는 능력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도 그러한가. 총론 핵심역량에 없는 내용을 추가할 만큼, 타교과

1)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국어과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총론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국어	자기 성찰·계발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비판적·창의적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 계 역량

보다 혹은 못지않게 혹은 다른 측면에서 국어교육이 나아가 문학교육이 비판적 사고를 잘 길러줄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국어교육, 문학교육 연구자라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막상 비판적 사고를 정의하고 답하려고 하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비판적 사고의 의미역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이념적 사고, 맥락적 사고 등이 비판적 사고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총론에 따르면 창의적 사고 역량은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이다.²⁾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은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이다.³⁾ 두 정의를 비교하면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한다는 내용 정도가 ‘비판적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교는 국어과의 비판적 사고가 적어도 형식논리학에서 말하는 논리논증 능력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그러나 막연하기는 여전하다. 어쩌면 국어과 영역마다 혹은 동일 영역 내에서도 비판적 사고라는 말을 각기 다른 함의로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비판적 사고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쓰이고 있다면, 이러한 개념을 국어과 핵심역량으로 삼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념적 혼란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기초 작업으로 문학교육 담론에서 비판 능력 개념이 어떻게 변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1990년대 이후 문학교육 논문들로 한다. 문학교육학을 정립하려는 노력과 함께 기존 문학교육 내용과 방법을 비판하는 논의가 크게 일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은 비판 능력, 비판적 주체, 비판적 사고 등의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는 논문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서 담론 간 영향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의 상이한 비판 능력 개념을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 속에서 파악한다.

2. 민족과 순수 이데올로기를 밝혀내는 능력으로서 비판 능력

문학교육 담론에서 비판 능력에 대한 본격적인 언급은 1990년대 중반 정재찬을 비롯한 일군의 연구자들에서 비롯한다. 그리고 그것에 단초를 제공한 것은 도정일이다. 도정일은 오늘날 “문학 공부에 뜻도 소질도 흥미도 없는” 일반 학부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문학 교육으로 “<갈등교육>으로서 비평적 교육”을 제안한다.⁴⁾ 도정일에 따르면 문학교육은 학생들의 삶과 문학을 연결해주는 생생한 지적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학생들이 작품 속 가치 있는 내용을 내면화하여 인격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대하는 기존 문학교육의 목표는 실효성을 잃고 있다. 또 의미완결체로서 작품

2)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2면.

3)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 3면.

4) 도정일(1994),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서울: 민음사, 321, 334면.

자체를 사사로운 마음 없이 분석하고 이해한다는 방법 역시 ‘순수성’과 ‘객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제 문학교육은 문학을 작품보다 텍스트로, 개인의 창조물보다 역사적 산물로, 인간사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잘 빚어진 향아리’보다 인간사의 불가피한 갈등을 사유하는 매개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갈등교육으로서 문학교육에서 교수자는 작품을 선별하여 학생들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어떠한 문학 텍스트가 ‘작품’으로 공고하게 인정받는 과정과 이면에서 작용하는 여러 층위의 이해관계를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학생은 이러한 ‘갈등의 드라마’를 보고 직접 판단하고 그 이유도 스스로 설명한다. 이로써 문학의 이데올로기성을 깨닫고, 당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생각과 표현으로 나아간다. 도정일은 이를 ‘비판력’ 혹은 “담론 능력(discursive competence)”이라고 한다.⁵⁾ 갈등교육은 결코 흥미본위는 아니다. 하지만 갈등의 드라마를 다룬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 갈등교육은 시민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인 비판력을 증시한다. 이 점에서 대중적 인문교육과 부합한다.

도정일의 글은 짧은 평문이다. 반면 정재찬의 글은 학위논문이다. 도정일의 글에서 확인되는 아이디어와 문제의식이 정재찬의 글에서는 보다 방대하고 정교하게 서술되어 있다. 도정일이 일반 학부생을 염두에 두고 제안한 갈등교육으로서 문학교육을 정재찬은 중등교육에 적용한다. 도정일이 간략하게 지적한 신비평의 이데올로기성을 정재찬은 한국 문학교육 내 신비평 수용사를 검토하면서 자세히 밝혀낸다. 도정일이 인상적으로 사용한 ‘비판력’, ‘담론 능력’ 등의 용어를 정재찬은 취사선택하고 다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판적 주체’라는 표현을 통해 갈등교육으로서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능력의 함양을 넘어 특정한 주체 형성에 있음을 강조한다.

정재찬에 의하면 학교 문학교육은 “제도적으로 승인된 문학성 자체를 문제틀”로 삼아야 한다.⁶⁾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틀 속에서 작품을 배우기보다 어떤 문학을 작품이 되도록 하는 담론들을 탐구한다. 그리하여 “담론 실천의 조건화에 대한 탐구”인 ‘비판’ 능력을 기른다.⁷⁾ 비판력이 높은 학생은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거나, 텍스트 내용에 시비 거는 것을 넘어서, 왜 해당 텍스트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으로 주어졌는지 심문한다. 이 과정에서 “자명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인식”을 얻고, 나와 타인과 세상에 관하여 당연시되는 것들에 이의를 제기한다.⁸⁾ 그리하여 내면화된 이데올로기에서 스스로를 해방하는 ‘비판적 주체’가 된다.⁹⁾ 갈등교육으로서 문학교육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문학 본래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 또 학생을 능동적인 지식의 생산자로 자리매김한다. 이 점에서 ‘비판적 주체’는 정전을 읽혀 ‘성숙한 주체’를 형성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전과 그에 대한 권위적인 해석에 순종하는 ‘유순한 주체’를 생산할 뿐인 기존 문학교육의 목표에 대안을 제시한다.¹⁰⁾

김성진은 제목에 드러나듯 ‘미군정기 민족문학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갈등교육으로서 문학교

5) 도정일(1994), 위의 책, 341면.

6) 정재찬(2003), 『문학교육의 사회학을 위하여』, 서울: 역락, 126면.

7) 정재찬(2003), 위의 책, 125면.

8) 정재찬(2003), 위의 책, 126면.

9) 정재찬(2003), 위의 책, 177면.

10) 정재찬(2003), 위의 책, 125면.

육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때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다. 김성진이 논의의 범위를 문학사교육으로 한정한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중등 문학교육이 작품 읽기 중심인 상황에서 갈등교육으로서 문학교육을 전면화하자고 말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 그것은 전자가 교육적으로 실패라고 확신하여야 단행할 수 있다. 반면 문학교육의 일부인 문학사교육을 정전 중심의 문학사를 요약하던 기존 방식에서 정전 지위를 두고 갈등하고 경쟁하던 ‘문학들’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은 요약을 해도 길고 긴 문학사 내용을 교육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기존 문학교육 입장에서도 수용할 만하며 애당초 정재찬이 내세우는 방법론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문학사교육이기도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성진은 미군정기 복수의 ‘민족문학론’을 문학사교육 자료로 삼고자 한다. 해방 직후 다수의 문학 단체가 민족문학론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용어 안에 내포된 의미는 “그들의 이념적 지향의 차이만큼이나 커다란 것”이었다.¹¹⁾ 김성진은 이러한 문학사적 지식을 ‘갈등적 지식’이라고 한다.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갈등적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가령 임화의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 임무」, 조연현의 「문학의 위기」 같은 평문들과 지하련의 「도정」, 김동리의 「윤희설」 같은 소설 텍스트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주어진 자료를 정리하고 비교하고 논의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탐구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념을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구성하는 능력”을 기른다.¹²⁾ 김성진은 다소 어색하게도 이를 삶과 문학에 관하여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내용과 방법으로 볼 때, 김성진의 ‘지혜로운 인간상’은 정재찬의 ‘비판적 주체’와 다르지 않다.

이상은 1990년대 문학교육 내 비판 개념과 관련하여 특정한 문제의식이 촉발되고, 심화되고, 구체화되는 일련의 흐름을 보여준다. 물론 언급한 글 외에도 문학교육에서 사용한 비판 능력 혹은 비판적 주체 개념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하는 글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도 당시 비판 개념이 문학교육에 수용된 양상은 어느 정도 드러난다. 한편, 이러한 문학교육 방법론에 대한 평가는 본고의 관심사가 아니다. 본고에서 말하려는 것은 1990년대 문학교육 담론에서 사용한 비판 개념에는 이데올로기적 함의가 매우 짙다는 사실이다. 이 당시 비판 능력은 ‘이데올로기성을 밝혀내는 능력’인 것이다.

이러한 비판 논의는 문학교육학 연구에서는 문학교육의 정전성을 해체하는 데 기여하였고, 문학교육을 실행하는 국면에서는 메타언어로 문학의 정치성을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무엇이든 첨예한 동시에 포괄적이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앞의 비판 논의와 갈등교육 모델은 너무 첨예하였고, 그만큼 새로운 문학교육의 목표와 방법론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문학교육—특히 문학교육을 실행하는 국면—에서 ‘비판 능력’이나 ‘비판적 주체’에 관한 논의는 이데올로기적 함의가 얽은 개념으로 대체되거나 재개념화된다. 가령 문학사교육 담론에서 ‘문학사적 안목’이라는 이름으로 작품과 작품, 작품과 사회 간의 ‘의미망 형성 능력’이 설정되고, “지금 나의 문학사관에

11) 김성진(1999), 「지식교육으로서의 문학사 교육에 관한 연구-미군정기 민족문학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 10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571면.

12) 김성진(1999), 위의 책, 586면.

의해” 문학사를 쓰면서 “자아실현을 도모”하는 인간상이 강조되면서 문학사교육의 탈구축을 주도하는 모습이 그러하다.¹³⁾

3. 스스로 맥락을 찾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으로서 비판 능력

2000년대 들어 비판적 주체가 다시 문학교육에서 언급된 데는 뜻밖에도 외부 요인이 작용하였다. 바로 국어과 영역 구분 논쟁이다. 해당 논쟁은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일어나지만, 특히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무렵에는 그것이 심하였다. 문학 영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쪽에서는 읽기 자료인 문학 텍스트를 ‘읽기’ 영역과 분리하여 ‘문학’이라는 독립된 영역에서 가르치는 것이 합당한지 되물었다. 이에 대응하여 다른 쪽에서는 ‘문학’ 영역 고유의 논리를 내세우거나, 역으로 ‘문학’을 통해 읽기의 제(諸)양상을 기존 ‘읽기’ 영역보다 더욱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후자를 ‘문학 중심 독서 지도(literature based reading instruction)’라고 한다. 가령 이재기의 논의가 그러하다.

이재기는 국어교육에서 다루는 문식성을 크게 ‘자발적·기능적·문화적·비판적 문식성’으로 나눈다. 그리고 문학교육에서 각각을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을지 검토한다. 이재기에 의하면 문식성은 기본적으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읽고 쓸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지향·수준·신념·이데올로기가 개입하고 경쟁”한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복잡다단한 개념이다.¹⁴⁾ 모든 문식성은 이면에 해당 문식성을 통해 형성하고자 하는 주체를 상징하고 있다. 가령 비판적 문식성(critical literacy)은 ‘이데올로기와 문식 행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자신과 사회를 구성하는 지배 담론을 비판적으로 해체 및 재구성하는 능력’이다.¹⁵⁾ 이러한 비판적 문식성은 이면에 “텍스트 해석·생산 과정에 개입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글을 읽고 쓰는 주체”를 상징하고 있다.¹⁶⁾

이재기에 의하면 문학교육은 ‘기존 문학의 기원’을 분석하고, 문학 읽기 경험에 ‘현실 맥락을 접목’함으로써 비판적 문식성을 교육할 수 있다.¹⁷⁾ 이러한 논의는 언뜻 정재찬 논의에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첫째, 위상의 차이이다. 이재기의 비판적 문식성은 ‘문학 중심 독서 지도’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때 비판적 문식성은 문학교육으로 신장할 수 있는 주요 문식성이지만, 제1의 문식성은 아니다. 둘째, 표적의 차이이다. 정재찬과 이재기의 비판적 주체는 모두 이데올로기적이다. 다만, 정재찬의 비판적 주체가 명확히 민족과 순수 이데올로기를 겨냥한다면, 이재기의 그것은 한두 가지를 특정하여 겨냥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늘날 “문식성 주체가 다양한 이데올로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일, 이데올로기적 사고 자체를 중시한다.¹⁸⁾ 그리하여 정

13) 노진한(1998), 「문학사의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국어교육』 97, 한국어교육학회, 50, 56면.

14) 이재기(2009), 「문학교육과 문식성 신장」, 『독서연구』 22, 한국독서학회, 122면.

15) 이재기(2005), 「문식성 교육 담론과 주체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면.

16) 이재기(2005), 위의 논문, 126면.

17) 이재기(2009), 위의 논문, 139면.

18) 이재기(2005), 위의 논문, 134면.

재찬과 김성진이 표현은 다르되 실질은 같았다면, 이재기는 표현은 같되 실질은 미묘하게 다르다.¹⁹⁾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기는 학위논문에서 정재찬과 비판적 주제 형성에 주목하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 한다’고 말한다. 이어서 정재찬의 논의가 문학교육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어교육, 문식성 교육 일반에 확장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고 덧붙인다.²⁰⁾ 즉, 이재기가 문학교육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비판적 주체는 우회로를 한 번 거친 것, 문학교육 내 정재찬의 비판적 주제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어교육 내 비판적 주제론으로 확장한 뒤 이후 문학교육에 다시 적용한 것이 된다. 이때 이재기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수업 방법론은 “갈등적이기 보다는 상호협력적”인 “소통 중심 문식성 교육 모형”이다.²¹⁾ 앞서와 마찬가지로 방법론은 본고의 관심사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회 과정을 통하여 문학교육 내 비판적 주제 논의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다양해짐과 동시에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겨냥한 문제의식은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임주탁의 논의에서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임주탁은 비판적 문학교육을 “작가의 사고와 감정의 일방적인 수용이 아니라 그 적절성과 정당성 등을 비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²²⁾ 내용 자체는 평이한 진술이다. 흥미로운 것은 비판적 문학교육의 출발점에 대한 임주탁의 인식이다. “비판적 교육(Critical Pedagogy)이 하나의 교육철학으로 부각하면서 새삼 비판적 문학교육에 관한 관심이 생겨났다.”²³⁾ 부사 하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이때 ‘새삼’이라는 표현은 당시 문학교육 담론에서 ‘비판 능력’에 관한 함의가 조금씩 변해가던 상황과 맞아떨어진다. 그것은 해체주의가 무성하던 1990년대부터 문학교육 담론 내에 있었던 것이지만, 2000년대 후반 비판적 문식성 개념과 섞이면서 내용과 방법 나아가 위상도 변화한, 말 그대로 ‘다시금 새로이’ 생겨난 관심인 것이다.

한편, 임주탁은 갈등교육 모델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갈등교육 모델에서는 교수자가 어떠한 문제에 관한 맥락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학생들이 직접 탐구활동을 수행한다. 임주탁에 의하면 이러한 활동은 기존 문학교육보다는 학습자 중심이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 갈등교육 모델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맥락 정보를 찾지 않는다. 오직 교수자가 제공하는, 주로 “전문가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연구자나 비평가가 찾은 맥락 정보” 안에서 생각하고 선택한다.²⁴⁾ 갈등교육 모델을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한다는 주장은 일부분만 진실하다. 이렇게 볼 때, 학습자에게 특정한 문제에 관한 다양한 맥락을 제공하고 직접 탐구하도록 하는 것 못지않게, 학습자에게 맥락 정보를 찾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보여주어 직접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임주탁에게 비판적 문학교육이란 일종의 맥락적 문학교육이다. 비판 능력은 “맥락 정보를 담은 자료를 수집하고 맥락

19) 가령 이재기가 현대사회의 이데올로기인 ‘도구적 합리성’에 대항하는 힘으로 문학 작품 속에 담긴 ‘민족, 종교, 우애, 사랑’ 등에 대한 경험을 거론할 때, 그로 인하여 형성되는 비판적 주체는 이미 정재찬이 상정하는 비판적 주제와는 사뭇 거리가 있다. 이재기(2009), 위의 논문, 140면.

20) 이재기(2005), 위의 논문, 8-9면.

21) 이재기(2005), 154, 186면.

22) 임주탁(2013), 『문학교육학 및 문학교육의 방법론 검토—맥락 중심 문학교육학과 비판적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40, 한국 문학교육학회, 89면.

23) 임주탁(2013), 위의 논문, 119면.

24) 임주탁(2013), 위의 논문, 121면.

요소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이다.²⁵⁾

이상은 1990년대 문학교육 담론에서 성립된 비판 능력 개념이 2000년대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앞 장과 마찬가지로 몇 개의 글을 선별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엄밀한 논증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논리 자체는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990년대 문학교육 담론에서 비판 능력은 국민 형성에 기능하는 민족과 순수 이데올로기를 밝혀내는 능력이었다. 그러한 비판 능력은 2000년대 중 후반 표현·이해교육에서 사용하던 비판적 문식성 개념과 섞이면서 어느 순간부터 민족과 순수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모든 이데올로기를 대상으로 삼는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겨냥하지 않을 때, 이데올로기적 사고는 내용보다는 방식의 문제가 된다. 이전에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작용 방식을 폭로하기 위하여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는 데 숙달됨으로써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영향으로부터 저항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시되는 것이다. 그 결과 비판 능력은 스스로 맥락을 찾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으로 재개념화된다.

4. 결론

비판 능력 개념은 함의가 변하였지만 문학교육 담론에서 살아남았다. 사실 비판 능력이 포괄하는 의미역이 얼마나 넓은지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든 비판 능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비판적 주체라는 개념은 어느 순간부터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다. 앞서 그 이유를 비판적 주체에 담긴 함의가 너무 침예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시민교육으로서 문학교육에 관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왕근에 따르면 시민성은 복잡하고 변증적인 개념이다. 시민은 사회의 무수한 규범적 표준을 따르고 내면화한다. 시민은 동시에 그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지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한다. “시민은 표준을 따르는 세계로 들어가서 표준을 극복하는 세계에 존재한다.”²⁶⁾ 만약, 과거 국민 주체로서 개인을 호명하던 시대가 오늘날 시민 주체로서 개인을 형성하는 시대로 넘어왔다면, 국민 주체를 대타자로 삼았던 비판적 주체가 그만큼 유효성을 상실하고, 그러한 인식론적 공백을 시민 주체가 메우면서 비판 능력이 시민 주체 형성에 필요한 능력들 중 하나로 재개념화, 재정위되는 것은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인 셈이다. 문학교육 담론도 다르지 않다.

논의의 끝에서, 다시금 국어과 교육과정의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정의로 돌아가 보자. ‘다양한 상황이나 자료, 담화, 글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만드는 능력.’ 처음 가정대로 정의에서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여’가 비판적 사고에 해당한다면, 문학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가. 누구도 확실한 답을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누구든 문학교육 담론에서 ‘비판 능력’ 개념이 사용된 사적 맥락을

25) 임주탁(2013), 위의 논문, 122면.

26) 김왕근(1995), 「시민성의 두 측면—형식으로 보는 관점과 내용으로 보는 관점」, 『시민교육연구』 20, 한국사회과교육학회, 71면.

고려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교육과정 총론과 같은 상위 수준에서 정의한 바를 그대로 반복하고, 그것에 문학교육 내용을 끼워 맞추는 가능성이 높다. 본고의 노력이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을 문학교육 영역에서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그리하여 문학교육을 통해 길러주어야 할 역량을 보다 유의미하게 규정하고 실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5].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

2. 논문 및 저서

김왕근(1995), 「시민성의 두 측면—형식으로 보는 관점과 내용으로 보는 관점」, 『시민교육연구』 20,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김성진(1999), 「지식교육으로서의 문학사 교육에 관한 연구—미군정기 민족문학론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0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노진한(1998), 「문학사의 문학교육적 의의 연구」, 『국어교육』 97, 한국어교육학회.

도정일(1994),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서울: 민음사.

이재기(2005), 『문식성 교육 담론과 주체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재기(2009), 「문학교육과 문식성 신장」, 『독서연구』 22, 한국독서학회.

임주탁(2013), 「문학교육학 및 문학교육의 방법론 검토—맥락 중심 문학교육학과 비판적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40, 한국문학교육학회.

정재찬(2003), 『문학교육의 사회학을 위하여』, 서울: 역락.

「문학교육 담론에서 사용하는 ‘비판 능력’ 개념 변천에 관한 시론」에 대한 토론문

문장원(고려대)

흔히 문학교육에서 ‘비판’이라는 용어의 함의는 작가, 텍스트에 대한 의심과 분석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표문에도 제시되어 있듯 (문학교육연구에서나, 교육과정 등에 반영된 문학교육현실에서나) 이제 문학교육에서의 비판은 ‘텍스트 너머’를 가리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학을 통해 함양되어야 할 능력 중 하나가 비판적 사고임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막상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박수민 선생님은 1990년대 이후의 문학교육연구들을 일별하며 문학교육에서의 ‘비판’ 개념의 변천을 살폈습니다. 저 역시 문학교육을 통한 비판적 주체 형성에 주목하여 학위논문 주제를 탐색·준비 중인 연구자로서 흥미롭게 읽었고, 의미 있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글에서 정의하는 ‘비판’의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목에서도 밝혔듯 이 글은 시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마 본격적으로 연구를 확장한다면 더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 때 매우 난망해지는 부분이, 기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목하는 대상이 모두 다를지라도(예를 들면 ‘윤리’, ‘성찰적 사고’, ‘수사적 주체’ 등등), 결국 어떻게든 ‘비판’ 개념을 내포하거나 경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개념 변천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더라도 범주화를 위한 연구자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글에 담지 못한, 혹은 명확하지 않으나마 생각해 두신 틀이 있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1990년대 연구의 대표로 다루어지고 있는 정재찬의 연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의 글을 정리하면 문학교육 담론에서 언급되는 ‘비판’의 대상은 1990년대에는 한정적이었고, 2000년대에 들어 확장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보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90년대 문학교육 담론에서 비판 능력은 국민 형성에 기능하는 민족과 순수 이데올로기를 밝혀내는 능력”이라고 정리하고 계십니다. 혹은 “정재찬의 비판적 주체가 명확히 민족과 순수 이데올로기를 겨냥”한다고 보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 정재찬의 논의에서 긍정되는 비판적 주체는 당대의 사회·문화에 스며든 이데올로기 자체, 혹은 이데올로기의 역사성 자체를 사유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즉 작품 목록과 주해 방식이라는 두 축에서 한국 문학교육을 지배해 온 이데올로기가 ‘민족/순수’ 문학 담론과 ‘신비평’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정재찬이 탈구축의 목표로 삼는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생님의 글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사회·문화’ 전반에서 ‘국어’로 대상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문학교육 담론의 비판은 그 대상이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문학교육 현장에 대한 고려입니다. 선생님은 이 연구의 동기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핵심역량에서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주지하듯 문학교육연구는, 나아가 국어교육 및 교육에 대한 연구는 유난히 대상과 거리 유지가 (자의든 타의든) 힘들어 보입니다. 1990년대의 정전 비판 논의 또한 현장의 ‘학습자 중심 교육’ 요구와 맞물려 비로소 교육 현장에서 나름대로 실험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문학교육과 문학교육연구 양자는 상호작용하는데, 사실 면밀히 살펴보면 전자가 후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 역보다 훨씬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학교육연구에 한정 짓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개념의 변천이 있다면 거기에 영향을 끼친 문학교육현실을 같이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대상을 ‘문학교육 담론’이라고 규정하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담론’ 자체도 ‘비판’ 만큼이나 포괄하는 의미역이 넓은 용어이기에, 이는 자칫하면 문학교육을 둘러싼 현상 전체에 해당될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학교육연구에서 ‘비판’이라는 용어의 변천에 문학교육 현장의 요구, 혹은 현실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곡해한 내용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선생님 답변으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